

아바타로 가상공간서 전주 관광

전주시, 27일부터 메타버스 글로벌 플랫폼 '제페토' 활용 전주 곳곳 홍보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역 앞 첫마중길 등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주요 관광명소가 둥지를 틀었다. 이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 속 전주를 둘러보며 향후 전주 관광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메타버스의 글로벌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해 전주 곳곳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공간에서 소셜 활동을 즐기는 Z세대(10~20대) 놀이터로 불리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거점도시 전주 홍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과 관련 업무협력을 추진해온 시는 최근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제트 및 한국관광공사와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전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우선 시는 전문가들과 협력해 전주한옥마을을 태조로와 전주역 앞 첫마중길 등 관광명소를 활용해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제페토 안에서 전 세계의 아바타들이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랜드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주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비짓전주'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가 글로벌 Z세대를 타깃으로 한 선도적 마케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싱가포르 레플스 고등학교 학생들과 랜선 수학여행을 추진하고, 지난달에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랜선투어를 진



전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메타버스의 글로벌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해 전주 곳곳을 홍보한다.

행하기도 했다.

정명희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 단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번 홍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 세계 Z세대에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선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닐류 등의 혼합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공동주택 64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삼전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인 전주시 리사이클링 타운의 기계 설비가 비닐류, 빼다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옥수수대 등으로 인해 파손돼 가동이 중단되고 수거운반이 지연되는 등 주민불편을 막

기 위함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에는 비닐류, 폴리스틱류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옥수수대, 대파·깻파 등의 뿌리, 옥수수·생강·마늘 껍질, 각종 차류(티백) 및 한약재 찌꺼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소·돼지·닭 등 육류의 뼈, 조개 등 패류 껌데기, 생선뼈는 매립용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수산물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입니다"

광어·우럭·참돔·낙지·아귀 등 15개 수산물 대상… 표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준수 의무화를 홍보·계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광어, 우럭, 참돔, 낙지, 아귀 등 15개 수산물에 대해 배달음식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는 가리비, 갈치, 냉장명태, 흥어, 활참돔 등 주요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한 업체 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산물의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만 18~49세 시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

전주시, 9~18일 10부제 방식 사전예약… 26일~30일 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화산·덕진에 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만 18~49세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이 지난 달 30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에 한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접종된다. 사전예약은 오는 9월부터 18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cvr.kdca.go.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10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별도로 만 18~49세의 자체자율접종 대상자 중 사전예약을 완료한 641명의 경우에는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1차 접종이 완료된다.

지자체 자체접종 대상자는 ▲대민 민원업무 종사자 ▲환경미화(방역 포함) 관련 종사자 ▲학교 및 학원 종사자 ▲대중교통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밀집 공간에서 근무하는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으로, 이번에 누락된 고위험 및 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오는 6일까지 사전예약을 받아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접종이 이뤄진다.

시는 또 맞춤형 접종대책으로 방역수칙 자율 이행이 어려운 별장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화산·덕진에 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한다. 이들에게도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접종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을 비롯해 콜센터(1339)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예약 할 수 있다.

이외에 맞춤형 접종대책 대상자 중 ▲중증질환으로 재원 또는 수시 외래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및 보호자(의료기관 자율접종) ▲거리 노숙인 및 미등록 외국인 ▲국제항해 종사자 등의 접종 시기는 추후 확정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화산·덕진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만 50~59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만 55~59세는 지난 달 26일 시작돼 오는 28일까지 접종이 완료되며, 만 50~54세는 오는 16일부

터 28일까지 시행된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접종되며 2차 접종일정은 추후 정해진다.

또한 만 60~74세 시민 중 접종하지 않은 1만1000여 명은 오는 31일까지 예약을 받아 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주시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 중 미접종자 4000여 명은 화산·덕진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예약한 뒤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멎추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인 만큼 집단면역 확보를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예방접종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화산·덕진예방접종센터와 약 19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약 25만여 명에 대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 중 약 9만여 명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 냉방기 기동에 따른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다중이용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금수시설, 목욕탕 등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면서 감염되는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검사 대상은 종합병원, 요양병원, 대형쇼핑센터, 노인복지시설, 호텔, 대형목욕탕 등으로, 냉각탑수와 병실, 내화장실 및 목욕탕 수도꼭지와 사위해드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점검하게 된다.

레지오넬라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각탑과 금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농도 관리 등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치료

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5~20%의 치명률을 보이는 만큼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레지오넬라증은 식욕감퇴, 무기력증, 고열, 두통, 미분기침,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등의 주요 증상을 보인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